

불자 세상보기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실버타임즈 편집국장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식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자신의 새 시대를 여는 국정지표로 발표하였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를 위기의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극복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희망의 새 시대를 열자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사에서는 언제나 민주주의 발전과 구약의 청산이 강조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취임사에서는 경제, 행복, 문화 이 세 가지만 간명하게 천명 되었다. 매우 신선한 맛이 있었다. 이에 우리는 경제와 행복이 두 가지를 간략히 요약해 보고 우리 불교인들의 관심 사항인 '문화융성'에 대해서 논급해 본다.

박 대통령에게 있어서 경제부흥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핵심 개념이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합,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는 것이고,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좌절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국민 각자가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 설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행복은 국민 맞춤형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축복이 되며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

위 할 수 없게 지니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다음 박 대통령은 문화에 대해서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의 시대입니다"라고 막바로 강조한다. 그렇다. 박 대통령의 말대로 문화는 국력이다. 아주 올바른 진단이다.

역사를 회고 하건대, 과거 2천년 가까이 중국이 동아시아를 지배 할 수 있었던 것은 창과 칼의 힘이 아니라, 문화의 힘이었다. 순서로 보면 유(儒)도(道)에 이어 불(佛)이 가세하면서 이 삼교(三教)의 중국 문화가 한국, 일본, 월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지배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영국의 유명한 문명사학자 아놀드 토인비(氏) 문명, 한국 일본 등 여타의 나라들의 문명을 자식(子) 문명이라고 규정지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문화는 한 나라 국력의 총화이다. 특히 전통문화는 현대 문명의 모태가 된다. 오늘 날 세계의 환영을 받는 한류도 우리의 5천년 유구한 전통문화가 모체가 되어 일어난 현상이다. 김석수의 사물놀이나 대장금, 뽀빠이 등이 그 단적인 예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융성'은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발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전통문화에 있어서 우리는 불교와 유교 문화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불교는 현재 우리나라 유행문화재의 70%를 능가 할만큼 우리 문화발전의 절대적인 공헌을 남겼다.

박 대통령의 '문화융성'은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받은 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새 박 대통령은 한국 불교에 대한 선대 아버지의 공적을 알 필요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5.16후 군사정부 시절 비구-대처의 싸움을 종식 시키고 62년 4월 통합종단을 출범시켜 파나는 불교 분쟁을 종식 시켰다.

이어서 64년에는 팔만대장경 번역사업인 한글 대장경 간행에 국고보조를 지원토록 하여 2천년에 그 대장불사를 회향케했고, 균제제도도 만들어 불교의 군포교를 실현시켰으며(68년), 불교사 해인사 석굴암 등 전통 사찰이 일제에 의해 훼손되고 그 후 더럽혀진 것을 경

불교는 한국 정신문화의 근간
한류는 전통문화 모체서 나온 것
연등회 등 무형문화에 신경써야

내지 정화를 통하여 성역화하는데 성공했다. 물론 여기에는 비구 종단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지만 박정희 정부의 도움은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산, 도봉산 등 유명한 산에 난립해 있던 수많은 유사사찰(무당절)들을 일거에 철거시켜 자연을 정화하고 정통 불교를 옹호 했다. 또 75년에는 불교계의 숙원을 받아들여 타종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을 국경공휴일로 정하였다. 그 부인 육영수 여사 역시 스님들을 공양하고 불사를 열심히 했다.

이들의 이러한 불사는 개인적 신앙심도 있었겠지만, 그 보다는 민족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현대

문화를 창조하는데 보다 원대한 뜻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 '한국정신문화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창립한 것도 그런 정신의 일환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이란 말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용어이고, '문화융성'의 개념도 위에서 본 것처럼 그 부친의 정신적 유산이 아닐 수 없다.

한국불교는 한국전통 정신문화의 근간이다. 불교문화를 때어 놓고 오늘날 '문화융성'을 기한다는 것은 맹자의 말대로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하다. 한국불교는 이제 사찰, 불상, 조각품, 회화 등 여러가지 유형(有形)의 문화유산을 상당한 수준까지 보존 계승 발전하는데 성공 했다.

그래서 이제는 무형의 불교문화에 대한 문화적 탐구 내지, 그 중흥을 꾀할 때이다. 영산재, 연등회, 팔관회, 수륙제 같은 것들이 그 일환의 하나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정신적 무형의 분야에선 개발해야 할 부분이 많다. 승속을 막론하고 오늘날 한국불교의 지성(知性)들은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전통적인 것의 개발 및 전승은 물론, 새로운 것의 창조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들도 이제는 불교문화 창달에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정부의 지원도 적극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에 대한 정책적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명명하며, 또한 정부 역시 앞으로 한국전통 불교문화의 창달에 아낌없는 지원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해 마지 않는다.

社說

동북아 불교의 공조가 필요하다

3·1절이 올해로 93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여느 때와 달리 마음이 무겁다. 2월 22일 일본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진행했고, 한일 양국 시민단체 회원들까지 현장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앞서 일본 극우주의자들은 주한일본대사관앞 위안부소녀상에 말뚝을 박는 등 양국 우호 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 시진핑, 일본 아베 신조,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연이어 출범했지만,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하다. 도무지 풀릴 여지가 없어 보인다. 본지는 올해 초 신년호 기획으로 '동북아 평화위한 한중일 불교 역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은 바 있다. 당시 동북아시아 갈등을 불교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풀어야 할 것을 제안 했다.

또한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등의 국제적 불교 교류 행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조동종 이치노헤 쇼고 스님이 본지의 371절 기념 특별기고에서 "불교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완전 독립해야 하는 것을 재확인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스님은 "불교는 민족이나 영토를 넘은 제3의 지점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지점을 놓친 것이 식민지 조선시대이며 전쟁에 가담한 일본 불교의 과거 흔적"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불교는 항상 정치권력과 분리하고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한중일 불교가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속제이다.

한중일 불교는 연거푸 불교문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성숙된 정견을 표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례적이고 관례화된 행사는 지양하고 새로운 '동북아 시대'의 도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이제 는 교류의 양이 아닌 질적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행복바라미 모금사업에 거는 기대

불교에서 보시는 자비 사상을 실천하는 중요한 덕목이다.

다른 이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베푸는 보시는 현대 사회에서는 기부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상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기간동안 대대적인 거리모금 캠페인에 나선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캠페인 기간에는 전국 16개 시도 시청과 백화점, 역사, 터미널 등지에서 카드 단말기가 내장된 138개소 모금함이 설치된다. 특히 연등축제가 진행되는 5월 11일에는 집중적인 캠페인이 펼쳐지며 제등행렬에 맞춰 모금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진행되며 순연재, 이상화 등 스포츠 스타들이 홍보대사로 나선다.

단일 단체 규모로는 최대를 자랑하는 이

번 캠페인의 예상 모금액을 날마다 좋은날은 최소 1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으로 잡고 있다. 모금된 기금은 전액 종단 지정 기관들에게 기탁된다고 한다.

사회공헌선구현사업의 일환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기간에 맞춰 대규모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는 불자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으로는 나눔의 문화를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다. 종단과 불교계 단체들이 아무리 좋은 모금 사업과 캠페인을 진행해도 불자들의 참여 없으면 아무 것도 이뤄질 수 없다. 중앙신도회도 불자들이 '행복바라미 모금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캠페인이 '무주상보시'라는 아름다운 불교의 가르침을 불자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각해봅시다

졸업·시상식 꽃다발 대신 기부금

2월은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기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각각 학교마다 졸업식이 진행된다. 졸업하는 사람과 축하해주러 오는 사람들이 물리는 졸업식장에 빠지지 않는 것은 꽃다발이다.

연말연시의 각종 시상식에서도 꽃다발은 넘쳐난다. 연예인들의 시상식의 경우 사회자가 나중에 줄 것을 강권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들은 불교계의 연말 시상식과 불교대학 졸업식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사례들이 있다. 몇몇 학교를 중심으로 꽃다발 대신 기부를 선택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다. 실제 2월 14일 열린 서울 노원구 공릉초등

학교 졸업식에는 꽃다발이 없었다. 70여 명의 졸업생이 꽃다발 대신 하얀봉투를 들었다. 하얀봉투에는 2-3만 원의 꽃다발 비용이 있었고, 아이들은 이를 희귀 난치질환 아이들에게 기부했다. 이렇게 모인 돈이 56만 1500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비용이지만 공릉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이 돈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도 꽃다발 없는 졸업식이 열렸다. 꽃다발을 사는 비용으로 졸업생에게 쌀을 선물하게 한 것이다. 이날 졸업식에서 판매된 230여 포대의 쌀은 졸업생의 이름으로 지역 사회복지센터에 기부됐다.

이렇게 넘쳐나는 꽃다발은 어찌 보면

낭비이며 1회용 쓰레기에 가깝다. 구입한 꽃다발을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꽃 한 송이마다 비닐을 씌운다든지, 혹은 겹포장을 세 겹이나 네 겹, 심지어 대여섯 겹까지 과대포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다. 이는 지나친 낭비이고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켜 환경보호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이런 꽃다발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집에 가져와 보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말 꽃을 주고 싶다면 한 두송이로 축하해줄 수도 있는 일이다.

행사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형 화환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행사 초대장에 '화환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내지

'화환대신 쌀을 받습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것을 왕왕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화환 소비가 이뤄진다. 통계에 따르면 각종 행사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화환이 연간 700만 개로 약 7,000억 원대의 경제적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할지라도 화환과 꽃다발이 반갑겠는가. 함께 있어주고 축하해주는 사람과 가족들이 반가운 일이다. 가수 안치환도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는가.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 라고.

굳이 꽃이 아니어도 반갑게 맞잡은 두 손과 눈길 사이에서는 꽃이 피어나기 마련이다. 그 '인연꽃'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신종일 기자

하기척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야 할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효도선물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신제품
MSM Glucosid & Omega3 Cream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허리·팔·다리·무릎·어깨 등... 통증이 있으시면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로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문질러 발라주세요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통증이 있으신 분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근육통이 있으신 분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120ml x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치아통증 이제 끝! 신비의 견운모 치약 지긋지긋한 치아로부터 해방!

견운모치약이 이렇게 좋은줄 이제 알았습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꺾어 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때 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견운모 치약은 고품질의 희귀원소가 함유(원적외선 92.5%)된 광물질로 구강 내 살균 소독 효과는 물론 세균증식을 억제하여 잇몸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예방 및 치유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효능효과
잇몸질환 예방
구취 제거
치주질환 예방
시린 이 개선
충치예방
미백효과
치태제거
200g x 2개 가격 2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